B. B. 워필드 『성경론: 성경의 영감과 권위』(CLC, 이경직·김상엽 역)

워필드 · 부록 2 신약 정경의 형성

B. B. 워필드, 『성경론: 성경의 영감과 권위』(이경직·김상엽 역, CLC), 부록 2, 텍스트판 295-299쪽. 처음에는 1892년 미국주일학교연합(American Sunday School Union)에서 소책자로 나왔다.

🧭 흐름 한눈에

워필드는 교회가 '성경'이라는 생각을 새로 만들지 않았다는 데서 출발한다. 교회는 유대교에게서 그 생각과 구약 전체를 물려받았다. 처음부터 성경을 가진 채 태어난 셈이다. 사도들은 자기들이 전한 말과 쓴 글에도 구약과 같은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교회는 사도가 준 새 책을 받을 때마다 구약 옆에 '성경'으로 한 권씩 덧붙였다. 신약 안의 증언(베드로후서 3:16, 디모데전서 5:18)과 2세기 교부들의 인용이 이 사실을 보여 준다. 다만 필사본은 퍼지는 속도가 느렸다. 그래서 지역마다 가진 책의 수가 달랐고, 모든 교회가 전체 목록을 갖추기까지 시간이 걸렸다. 결론은 이렇다. 정경을 가르는 기준은 '사도가 썼느냐'가 아니라 '사도가 교회에 규범으로 주었느냐'였다. 그러므로 정경이 천천히 퍼진 흔적을 두고 교회가 자기 권위로 책을 '정경으로 만들었다'고 읽어서는 안 된다.

📜 절별 정리

📜 1. 교회는 처음부터 성경을 가지고 태어났다

워필드는 정경 형성사를 이해하려면 먼저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고 말한다. 초대 교회는 '정경', 곧 하나님의 권위로 주어진 믿음과 삶의 표준이라는 생각을 스스로 고안하지 않았다. 그 생각을 유대교에게서 물려받았고, 유대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던 구약성경 전체도 함께 받았다. 교회는 세월이 흐르며 저절로 생긴 모임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뜻을 두고 세우신 공동체다. 예수께서 보내신 사도들은

없다고 본다. 그러니 교회가 한동안 성경 없이 지내다가 나중에 정경을 '만든' 것이 아니다.

1. 정경이라는 생각은 유대교에서 물려받았다
2. 구약 전체도 함께 물려받았다
3. 교회는 저절로 생긴 모임이 아니라 세워진 공동체다
4. 사도들은 구약을 교회의 규범으로 주었다
5. 교회는 성경 없는 시기가 없었다

> **(구절 인용 없음)**
> 저자는 특정 구절 대신 “신약의 모든 쪽”이 교회가 구약을 규범으로 받았다는 증거라고 말한다

“처음부터 '성경'을 지닌 상태로 존재했다.”

📜 2. 사도의 말과 글도 같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졌다

사도들이 교회에 규범으로 준 것은 구약만이 아니었다. 워필드의 논리는 이렇다. 새 언약의 일꾼인 사도들이 옛 언약의 선지자들보다 권위가 낮을 리 없다. 바울도 사라질 옛것에 영광이 있었다면 영원할 새것에는 더 큰 영광이 있다고 말했다. 사도가 전한 복음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였다. 그들은 성령의 힘으로 그 복음을 선포했고, 내용뿐 아니라 내용을 담은 말까지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다. 그래서 사도의 명령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 사도들은 그 명령을 편지에 담았고, 편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공동체에서 바로잡으라고 했다. 바울은 자기 글을 “주님의 명령”으로 인정하는 것이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인지 가늠하는 시험이라고까지 말한다. 사도들은 자기 편지를 예배 모임에서 읽으라고 직접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니 초대 교회는 사도의 글에 옛 성경과 같은 본질이 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3. 내용뿐 아니라 말까지 성령이 주셨다
4. 사도 편지의 명령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
5. 사도가 예배 때 편지를 읽으라고 했다

고린도후서 3:6

사도들이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자격을 받았다는 근거

>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3:11

옛 언약보다 새 언약의 영광이 더 크므로 사도의 권위도 선지자 못지않다는 근거

>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베드로전서 1:12

사도들이 하늘에서 보내신 성령의 힘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근거

>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 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2:13

내용뿐 아니라 그 말까지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이라는 근거

>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4:2

사도의 명령이 주 예수의 권위로 준 것이라는 근거

>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사도가 그 가르침을 편지(글)에 담아 전했다는 근거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데살로니가후서 3:14

편지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교회가 바로잡으라 했다는 근거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고린도전서 14:37

바울의 글을 주님의 명령으로 인정하는 것이 신령한 사람의 시험이라는 근거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데살로니가전서 5:27

편지를 모든 형제에게 읽어 주라는 사도의 요청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 주라

골로새서 4:16

편지를 교회에서 읽고 다른 교회와 돌려 읽으라는 요청. 번역본은 “4:15”로 적었으나 낭독 지시는 4:16에 있다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요한계시록 1:3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는 사람이 복되다는, 예배 낭독의 근거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 3. 계속 자라는 성경: 신약 안에서 이미 '성경'으로 불린 신약

초대 교회가 보기에 성경은 닫힌 목록이 아니라 계속 자라는 목록이었다. 구약도 모세에서 말라기까지 오랜 시간에 걸쳐 차츰 늘어났다.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동안에는 성경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여겼다. 그래서 사도의 권위가 보증하는 새 책을 기존 성경 옆에 놓는 일은 피할 수 없었다. 워필드는 이 일이 처음부터 일어났다는 증거를 신약 안에서 찾는다.
베드로는 바울의 편지들을 “다른 성경”과 나란히 놓는다(워필드는 베드로후서를 주후 68년의 글로 본다). 바울성경도 구약과 같은 성경의 일부로 본 것이다. 바울은 신명기와 누가복음을 “성경에 이르기를”이라는 한 제목 아래 함께 인용한다. 그것도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일처럼 그렇게 한다.

1. 초대 교회의 성경은 계속 자라는 목록이었다
2. 구약도 모세부터 말라기까지 자랐다
3. 영감 받은 사람이 있는 동안 확장이 가능했다
4. 베드로는 바울 편지를 '성경'에 넣었다
5. 바울은 누가복음을 신명기와 함께 인용했다

> **베드로후서 1:21**
>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 말하는 동안 성경이 늘어날 수 있었다는 근거
>
>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 **베드로후서 3:16**
> 바울의 편지들을 “다른 성경”과 같은 부류로 다룬다. 신약 글이 이미 성경으로 불린 증거
>
>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 **디모데전서 5:18**

>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삯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신명기 25:4

디모데전서 5:18이 “성경”으로 인용한 구약 본문

>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누가복음 10:7

같은 구절에서 신명기와 나란히 “성경”으로 인용된 신약 본문

>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삯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 4. 교부들의 증언: 신약은 '점점 높아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성경이었다

구약과 신약을 똑같이 '성경'으로 인용하는 방식은 초기 기독교 문헌에서도 끊이지 않는다. 폴리캅은 “성경에 이르기를”이라며 시편과 에베소서를 함께 인용한다 (워필드는 주후 115년 무렵의 글로 본다). 이 구절은 에베소서 4:26이고, 에베소서 4:26은 시편 4:4를 인용한 것이다. 이른바 클레멘트 2서는 이사야서를 인용한 뒤 “또 다른 성경에 이르기를”이라며 마태복음의 말씀을 덧붙인다. 마태복음은 그보다 앞서 바나바서(97-106년 무렵)도 성경으로 인용한 책이다. 이를 두고 신약이 처음에는 낮은 지위로 받아들여졌다가 차츰 성경으로 높아졌다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 워필드는 이것이 정반대라고 말한다. 이 증거들은 신약이 처음부터 성경으로 여겨졌고 기존 성경에 덧붙여졌음을 보여 주는 결정적 증거다. 그리스도인들이 새 책들로 구약과 경쟁하는 다른 정경을 만든 것이 아니다. 사도에게서 한 권씩 받아 옛 책 묶음에 하나씩 보탰고, 그 분량이 따로 이름을 붙일 만큼 쌓였을 뿐이다.

1. 교부들도 신구약을 함께 '성경'으로 인용했다
2. 폴리캅은 시편과 에베소서를 함께 인용했다
3. 클레멘트 2서는 마태복음을 “또 다른 성경”이라 했다

5. 경쟁 정경이 아니라 한 권씩 덧붙인 것이다

> **에베소서 4:26**
> 폴리캅이 “성경에 따르면” 하고 인용한 신약 구절(역주가 밝힘)
>
>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 **시편 4:4**
> 에베소서 4:26이 인용한 구약 구절. 폴리캅에게 두 책이 하나의 성경이었음을 보여 줌
>
>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 **마태복음 9:13**
> 클레멘트 2서 2:4가 “또 다른 성경”으로 인용한 말씀. 저자는 장절을 밝히지 않았다. 같은 말씀이 마가복음 2:17에도 있다
>
>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 5. 새 성경의 이름과 이그나티우스의 논쟁

신약 부분의 처음 이름은 당시 구약의 이름을 본떠 지어졌다. 그때 구약은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 줄여서 “율법과 선지자”, 더 줄여서 “율법”이라 불렸다. 그래서 늘어난 성경 전체는 “율법과 선지자, 복음서와 사도들”, 가장 짧게는 “율법과 복음”이라 불렸다. 신약만 따로 부를 때는 “복음서와 사도들” 또는 그냥 “복음”이라 했다. 이 이름은 이그나티우스(워필드는 주후 115년 무렵으로 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그나티우스는 유대주의자들과 다툰 일을 기록한다. 그들이 “구약에 없으면 복음을 믿지 않겠다”고 하자,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죽음·부활이 곧 자신의 구약이라고 답했다. 워필드는 이 답이 훗날 아우구스티누스가 남긴 말과 같은 뜻이라고 본다. “신약은 구약 안에 감추어져 있고, 구약은 신약 안에서 드러난다.”

과, 1세기의 한 그리스도인 “주교”를 조롱하는 『탈무드』 이야기도 신약 글이 기존 성경과 한 책으로 묶였다는 생각을 보여 준다고 워필드는 해석한다.

1. 신약의 이름은 구약 이름을 본떠 지었다
2. 성경 전체는 “율법과 복음”으로도 불렸다
3. 신약은 “복음서와 사도들”로 불렸다
4. 이그나티우스에게 신약은 구약과 하나였다
5. 유대 쪽 문헌도 같은 생각을 보여 준다

> **(구절 인용 없음)**
> 이 단락은 교부 문헌(이그나티우스 『필라델피아인에게』 5·6장, 『서머나인에게』 7장), 『열두 족장의 언약』, 『탈무드』(샤바트 116a-b)를 근거로 든다

📜 6. 2세기 초 신약 모음집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나

워필드는 사도 시대 바로 뒤인 2세기 초에 이미 새 책들의 묶음이 “복음서와 사도들”이라 불렸다고 본다. 이 묶음은 하나님의 “신탁”, “성경”, “거룩한 책들”의 일부로 여겨졌다. 남은 증거가 조각나 있어서 정확한 권수를 밝히기는 어렵다. 그래도 유스티누스는 “복음서”가 “사도들과 그 동역자들이 기록한” 책들이라고 말했고, 이것은 지금의 네 복음서를 가리킨다. 『열두 족장의 언약』에 따르면 “사도들” 부분에는 사도행전과 바울·요한·베드로·야고보의 편지가 들어 있었다. 증거를 모아 보면 2세기 초의 모음집에는 지금 정경의 대부분이 들어 있었다. 유다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빌레몬서처럼 짧은 책은 빠졌을 수도 있다. 하지만 초기 증거가 적은 까닭은 그 책들이 거부되어서가 아니라 너무 짧고 인용될 일이 적었기 때문으로 보는 편이 자연스럽다. 또 하나 기억할 점이 있다. 성경은 손으로 베낀 필사본으로만 퍼졌다. 그래서 어떤 교회가 불완전한 사본을 얻으면 오랫동안 그것만 썼을 수 있고, 그 사본을 다시 베끼면서 한 지역 전체가 불완전한 성경을 가질 수도 있었다.

1. 2세기 초 신약 묶음은 이미 '성경'이었다
2. 유스티누스의 '복음서'는 지금의 네 복음서다

4. 짧은 편지들은 증거가 적을 뿐 거부된 게 아니다
5. 필사본 탓에 지역마다 가진 책이 달랐다

> **(구절 인용 없음)**
> 이 단락은 유스티누스, 이그나티우스, 폴리캅, 파피아스, 마르시온, 클레멘트 2서, 『열두 족장의 언약』 같은 역사 증언에 기댄다

📜 7. 네 가지 질문을 나누어 보자

워필드는 정경 역사를 볼 때 네 질문을 따로 다루어야 한다고 말한다. 첫째, 정경은 언제 완성되었나. 둘째, 각 교회는 언제 정경을 받았나. 셋째, 완성된 정경은 언제 모든 교회에 퍼지고 받아들여졌나. 넷째, 불완전한 성경을 가진 교회들은 무엇을 근거로 나머지 책을 받아들였나. 첫째 질문에 대한 답은 이렇다. 사도가 마지막 권위 있는 글을 어느 교회에 주었을 때 정경이 완성되었다. 워필드는 이를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쓴 주후 98년 무렵으로 본다. 하지만 그때 에베소 교회가 전체를 다 갖고 있었는지는 다른 문제다. 예컨대 유다서가 사도적 권위의 증거와 함께 그 교회에 이미 와 있었는지에 달려 있고, 이는 역사적으로 따져 볼 문제다. 모든 교회가 전체 정경을 받아들인 것은 조금 더 뒤였다. 2-3세기 서방 교회는 히브리서를 두고 입장을 정하지 못했고, 시리아 교회는 몇 세기 동안 일부 공동서신과 요한계시록이 없는 정경을 썼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도 워필드는 이레나이우스 이후로는 교회 전체가 지금과 같은 신약 정경을 가졌다고 본다. 어떤 책을 두고 일부에서 의문을 품거나 판단을 미룬 일은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늘 교회의 일부에 그쳤고, 교회 전체가 어떤 책을 끝까지 거부한 적은 없었다. 그리고 받아들일지 말지는 언제나 그 책이 사도에게서 왔다는 역사적 전승에 따라 판단했다.

1. 완성·수령·보편 수용·수용 근거는 다른 질문이다
2. 정경 완성은 요한계시록 집필 때(98년 무렵)
3. 서방은 히브리서, 시리아는 일부 책에 늦었다
4. 이레나이우스 이후 교회 전체가 같은 정경을 가졌다
5. 판단 근거는 사도적 기원에 대한 역사 전승이다

> 요한계시록, 히브리서, 유다서, 공동서신이 언급되지만 특정 구절을 논거로 쓰지는 않는다

📜 8. 정경의 기준: '사도가 썼나'가 아니라 '사도가 주었나'

워필드는 마지막으로 흔한 오해를 바로잡는다. 초대 교회가 어떤 책을 정경으로 인정한 근거는 '사도가 직접 썼다'는 사실만이 아니었다. 아주 이른 때부터 사도 저작 여부와 정경 여부가 뒤섞이기는 했다. 서방에서 히브리서의 사도 저작을 의심했고, 일부 교회에서 야고보서와 유다서가 늦게 받아들여진 것도 그 때문인 듯하다. 하지만 원래의 기준은 사도들이 그 책을 교회의 규범으로 '부과'했는가, 곧 지키라고 맡겼는가였다. 테르툴리아누스가 정경을 '문서'(instrumentum, 인스트루멘툼: 법적 효력이 있는 공식 문서)라 부르고 구약과 신약을 '옛 문서'와 '새 문서'로 나눈 것도 이런 이해에서다. 사도들이 구약을 교회에 규범으로 주었듯, 같은 권위로 새 책들도 주었다. 그 책이 꼭 자기 저작일 필요는 없었다. 신약에서 처음 “성경”이라 불린 책이 사도가 아닌 누가가 쓴 누가복음이라는 사실이 이를 보여 준다. 유스티누스도 복음서를 “사도들과 그 동역자들이 기록한 것”이라 했다. 결론은 이렇다. 초기 교회는 사도가 규범으로 주었다고 확신한 책을 모두 신약에 넣었다. 그러니 넓은 지역에서 책들이 천천히 퍼지고 확인된 흔적을, 교회가 자기 권위나 취향으로 '정경화'하느라 시간이 걸린 증거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1. 사도 저작 여부와 정경성은 일찍부터 혼동됐다
2. 본래 기준은 사도가 규범으로 주었느냐였다
3. 테르툴리아누스는 정경을 '문서'라 불렀다
4. 처음 '성경'이라 불린 신약 책은 누가복음이다
5. 교회가 정경을 '만든' 것이 아니다

> **디모데전서 5:18**
> 사도가 아닌 누가의 복음서가 처음으로 “성경”이라 불린 사례. 기준이 '사도의 부과'임을 보여 준다
>
>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삯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바울이 신명기와 같은 권위로 인용한 누가의 본문

>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삯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그들이 정경으로 인정한 문서들이 반드시 그들 자신의 저작일 필요는 없었다”

⚖️ 오해와 반론

📖 용어

정경(正經, canon)
하나님이 믿음과 삶의 표준으로 주신 책들의 목록. 헬라어 κανών(카논)은 '곧은 자, 기준'이라는 뜻이다.

성경(γραφή, 그라페)
원래 '글'이라는 뜻의 말.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거룩한 글을 가리키는 전문 용어로 쓰였다.

열린 정경/닫힌 정경
아직 책이 더해질 수 있는 상태가 '열린', 더 이상 더해지지 않는 상태가 '닫힌' 정경이다. 워필드는 사도 시대 동안 정경이 열려 있었다고 본다.

사도적 권위의 부과
사도들이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 어떤 책을 교회가 지켜야 할 규범으로 맡긴 일. 워필드는 이것을 정경의 참된 기준으로 본다.

사도성(사도적 저작)
사도가 직접 썼다는 사실. 워필드는 이것이 정경의 유일한 기준은 아니었다고

필사본(사본)
인쇄술 이전에 손으로 베껴 쓴 성경. 퍼지는 속도가 느려 지역마다 가진 책이 달랐다.

교부(敎父)
사도 시대 뒤 초기 교회의 지도자이자 저술가들. 이 장에서는 폴리캅, 이그나티우스, 유스티누스, 이레나이우스, 테르툴리아누스가 나온다.

공동서신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요한일·이·삼서, 유다서처럼 특정 교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교회를 향해 쓴 편지들.

하기오그라파(Hagiographa)
'거룩한 글들'이라는 뜻. 유대 성경의 셋째 부분(성문서, 시편 등)을 가리킨다.

신탁(λόγια, 로기아)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라는 뜻. 초기 교회가 신약 묶음을 부를 때 쓴 이름 중 하나다.

🔗 다른 책과 닿는 곳

💬 청년의 삶으로

✅ 이 장의 결론

- 교회는 유대교에게서 구약과 '정경' 개념을 물려받아 처음부터 성경을 가진 채 태어났다.
- 사도들은 자기 말과 글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고 말했다. 교회는 사도가 준 새 책을 받는 대로 구약 옆에 '성경'으로 덧붙였다.
- 신약 안의 증언과 2세기 교부들의 인용은 신약이 '점차 높아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성경이었음을 보여 준다.

- 정경이 천천히 퍼진 것은 필사본 유통 때문이지, 교회가 자기 권위로 정경을 만든 증거가 아니다.

🎬 이 장을 쓰는 편

- 성경론 10편 · 66권은 누가 정했나 · 정경

빛다방 학습 노트 · 존 프레임 『성경론』(P&R Korea·CLC), B. B. 워필드 『성경의 영감과 권위』(CLC), 헤르만 바빙크 『개혁파 교의학』(새물결플러스)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1647)와 존 오웬의 논고(1659)는 공유 저작물로 우리 번역입니다.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 기준입니다. youtube.com/@빛다방